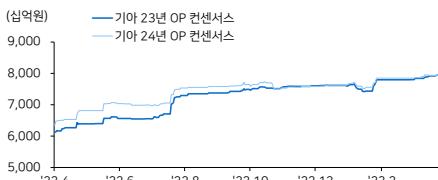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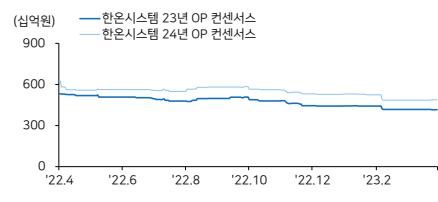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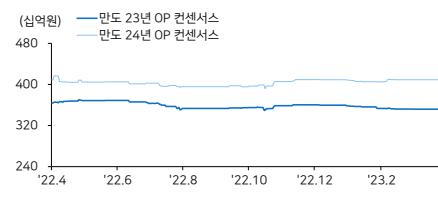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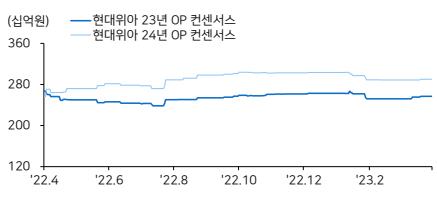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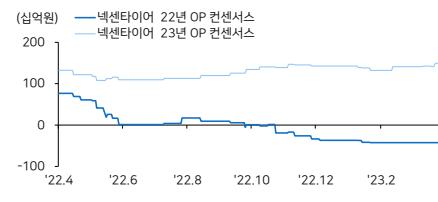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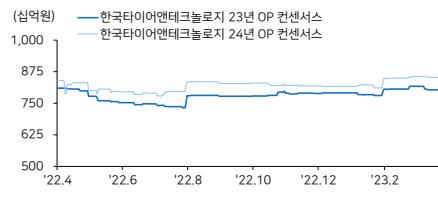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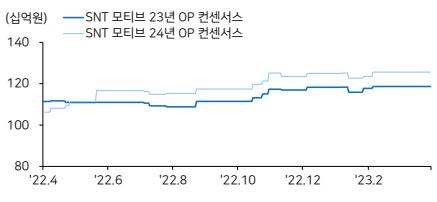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 '2030년 전기차 160만대, 영업이익 16조 목표' (뉴시스)

기아가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 430만대(전기차 16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전동화 중심'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 전기차를 기반으로 2030년 매출 160조원, 영업이익 16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제시.

<https://bit.ly/3GnaFzY>

전기차 해외 생산이 더 유리…이라다 위축될 가능성 (중앙일보)

전기차 생산이 해외 투자로 위축될 가능성이 고려하면 국내보다 해외 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며, 전기차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 생산이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크다는 우려 제기. EV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

<https://bit.ly/3KDUMwn>

How to bypass nearly every restriction of the EV tax credit by leasing (electrek)

IRA 법안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제한사항들은 소비자의 개별구매 쿠레딧(선션 30D)에만 적용,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를 리스할 경우 해외 조립 세금 규정을 피할 수 있으며 배터리 소싱 또한 통제되지 않음.

<https://bit.ly/3KdNaKO>

UK new car sales jump 18% YoY in March; best ever month for EVs (Reuters)

3월 영국 신차 등록대수는 8개월 연속 증가, YoY +18.2% 증가함. BEV 판매 또한 최고 기록을 달성. 1Q23 신차등록대수는 약 28.8만대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분기판매를 기록. BEV 판매는 46,626대(=YoY +18.6%).

<https://reut.rs/3KxJt3P>

韓, 영구자석 중국 의존도 88% 탈탄소 전환 산업계 대책 고심 (매일경제)

중국이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에 거론되는 사마를 코발트와 네오디뮴 같은 영구자석은 모터의 핵심 부품, 탈탄소 흐름에 따라 전기차·풍력발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요도 급증하는 상황. 수출규제 현실화 시 적잖은 충격 예상.

<https://bit.ly/3MK8lrc>

기아, 2026년 'HDP2' 주행보조 기술 도입…'전방 주시 필요 없어' (블로터)

기아가 오는 2026년에 전방 주시가 필요없는 'HDP2' 기술을 도입 예정. 기아는 HDP를 3단계 자율주행 기술로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HDP의 구현 가능성범위는 최대 시속 80km. 제한속도는 OTA를 통해 원활화될 예정.

<https://bit.ly/3gBZG2w>

Ford, Stellantis says new rules will cut EV tax credits for most models (Reuters)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새로운 IRA 규정이 발효되는 4월 18일부터 대부분의 EV/PHEV 세금공제 혜택이 3,750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포드 F-150 라이트닝과 링컨 에비메이터를 제외한 모든 모델은 모두 크레딧이 절반으로 감소.

<https://reut.rs/3Gpynl>

Some Chinese lithium producers stop production to stem continued price decline (CNEV)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의 리튬 수도'라고 불리는 장시성 이촌 지역에서 주요 리튬 생산업체 4곳 중 절반이 탄산리튬 가격 하락으로 생산 중단을 선택. 4개 업체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0만톤에 해당함.

<https://bit.ly/3MKh26b>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임의 신의 설득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